

농어촌공 무주지소 개소 이끌어내

무주군의회, 전북 14개 시·군 중 무주에만 없어 설치 건의... 농업인 편익 증대 기대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한국농어촌공사 무주지소 설치를 이끌어내 지역내 농민들의 고충을 해결했다. 무주군의회는 무주지소에서 생산기반 조성·정비, 농어촌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농지은행, 농지임대차계약, 농지연금, 농촌중심지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무주군 농민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개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어촌공사 사무소가 없어서 주민들이 무진장지사가 있는 장수군까지 가서 계약을 해야했다. 특히 무풍면 농민들은 왕복거리가 150km에 달해 고통농업인 및 영농철에는 방문 부담이 매우 컸다. 꼭 필요한 기관이 지역에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주민도 있었다.

이해양 의장과 의원들은 이 같은 주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을 찾아 건의했다.

지난해 8월 무진장지사장에게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무주에만 농어촌공사가 없어 주민들의 고충이 큰 점에 대해 문제 제기 했으며, 이어 11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장을 만나서도 지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한국농어촌공사 무주지소 설치를 이끌어내 지역내 농민들의 고충을 해결했다.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이후 무주군 내 사무소 설치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했고 12월에 자율지소 설치결정했다. 이에 따라 1월부터 무주읍 소재 사무실에 무주지소를 준비하고, 지난 1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해양 의장은 "많은 기관에서 조지

을 통·폐합하는 추세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가 큰 결정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무주군의 회에서는 앞으로도 주민 고충을 해결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더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살피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스마트 낙농산업' 기반 확보 주력

'한국형 로봇착유기 시범 사업' 평가회 가져

진안군은 지난 1일 지역 낙농농장에서 '한국형 로봇착유기 시범 사업' 평가회를 가졌다. 이날 전준성 군수를 비롯한 낙농가들

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주관으로 민관이 공동 개발한 한국형 로봇착유기는 젖소가 착유실에 들어가 자동 급여된 사료를 먹는

사이 로봇이 자동으로 착유컵을 부착해 우유를 짜낸다.

기존 착유는 사람이 직접 세척→착유컵 부착→착유→소독 등의 과정을 거쳤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모든 작업을 자동화했다. 이는 필요 노동력을 42% 절감시켜 낙농업 경영주 고통화에 따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한국형 로봇착유기는 착유 시 우유량과 우유성분 등의 정보를 경영주에게 제공하며, 이 정보는 젖소의 건강, 잡채 질병 등을 사전 예측하고 조기 처방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된다. 군은 시범농가와 계속적으로 소통하며 낙농 현장에서 한국형 로봇착유기의 안정적인 도입과 이에 따른 다양한 결과를 도출해 '스마트 낙농산업' 기반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준성 군수는 "미래에는 스마트 농업기술이 추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진안 지역 내 축산농가가 선도적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지난 1일 지역 낙농농장에서 '한국형 로봇착유기 시범 사업' 평가회를 가졌다.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진안군, 안정적 정착·신규 농업인력 육성 위해 13일까지 대상자 모집

진안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돕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관내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희망자 등에게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및 주택구입(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마련을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 금리와 저금리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1.1.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진안군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이며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군은 신청자의 사업계획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영농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면접을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들은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연 1.5%의 대출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융자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바라며 그 밖에도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설 맞아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무주군, 2월 한 달간 1인 70만원→100만원

무주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무주군에 따르면 5일부터 무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29일까지 25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역 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종전대로 최대 30만 원이다. 가맹점의 지역 상품권 환전 한도도 기존 월 1천만 원에서 월 4억 원까지로 확대(~2024. 12. 31.)한다.

이외에도 무주군은 상품권 사용 금액의 일정 부분을 포인트로 돌려주는페이백 이벤트 등을 통해 상품권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키움으로써 가계경제

에 도움을 주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관련 홍보와 무주사랑상품권 발행, 판매, 유통사업 진행에 최선을 다해 지역 주민들 모두가 든든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사랑상품권은 고향사랑기부금을 비롯한 관내 농협과 우체국 등 26개 판매대행점(금융기관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무주사랑상품권 발행액은 484억 원으로 이 중 446억 원을 판매, 447억 원이 환전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 내 소비를 키운 동력이 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2월 한 달간 1인 50만원→70만원

장수군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장수사랑상품권 개인 구매한도를 상향한다.

군에 따르면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방침과 함께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 도모를 위해 할인율은 10%를 유지하고, 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를 2월 한 달간 지역 상품권과 카드상품권을 합산해 1인 월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구매 방법은 모바일 앱(지역상품권 chak) 또는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지역 내 19개 금융기관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판매점을 직접 방문해 구매할 수 있고, '카드형' 상품권은 판매 대행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이 휴대폰에서 충전이 24시간 가능해 매우 편리하다.

단, 정부 방침에 따라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는 가맹점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하다.

최훈식 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장수사랑상품권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넉넉한 명절이 되길 바라며,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군, 소외계층에 행복꾸러미 300세트 지원

장수군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역농산물 및 간편 식품 등으로 꾸려진 행복꾸러미 300세트를 지원한다.

행복꾸러미는 지역에서 생산된 쌀, 계란, 토마토 등 친환경농산물 8종과 국거리, 김, 라면 등 14종으로 먹거리 2종 세트(10만 원 상당)로 구성된다.

꾸러미 세트는 장수군에 기부된 소중한 이웃들이 성급으로 마련돼 장수군 지역사회보장협의회의 주관으로 읍·면 협의체 등의 도움을 통해 장애인, 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따뜻한 보살핌과 지원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무주군이 풍수해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재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료의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으로, 주택(동산 포함 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및 상가·공정(소상공인)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주택(80㎡) 기준 1년 총보험료는 3만4,900원으로 무주군에서는 이 중 최대 92%를 지원한다.

제년 피해 시 기준 재난지원금으로는 최소 생계비(1,600만 원) 수준의 보상금만 지급되지만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주택 80㎡ 기준 전과 시 최대 7,200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반과 시에는 최대 3,600만 원, 철수 시에는 최대 53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및 문의는 연중 수시로 무주군청 안전재난과와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며 개별 가입을 원하는 주민은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7개의 민영보험사(국민재난안전포털 safekorea.go.kr)로 문의하면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